



## 자녀 양육 지원 가이드 - 형제·자매 관계

### 1. 형제·자매의 장애 수용하기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일은 성인인 부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보호자인 성인은 초기부터 전문가들을 만나 자녀의 현재 상황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에게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설명을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수준으로 장애에 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장애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명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눈에 보이는 특이한 행동이나 자극에 대한 엉뚱한 반응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보고 느끼는 궁금함이나 당혹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왜 침을 흘려요? 왜 괴상한 소리를 내요?) 솔직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단단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므로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 2. 형제·자매에 대한 이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요구에만 집중하다 보면 비장애 형제·자매는 성장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형제나 자매의 몫까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장애가 있는 형제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삶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공평하지 않은 대우에 분노하거나, 자신들도 두렵고 걱정되어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표현할 수 없어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장애 형제를 시기·질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형제·자매들은 장애를 가진 형제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 3.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

초등학교령기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자녀들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장애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과도한 기대를 표현해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미래의 일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형제·자매들은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항상 잘해야 한다는 것에 압박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막연히 자신이 장애 형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막연한 부담감이 정서적 성숙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장애 형제·자매가 갖는 어려움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개별 심리상담이나 연극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 방법

- 형제·자매의 고민이나 욕구 파악하기
- 진심으로 경청하기: 형제·자매의 감정 이해하기
- 정확한 장애 명칭 사용하기
- 장애 관련 궁금증 풀어주기
-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알려주기
- 자녀가 성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
- 장애 형제 돌보는 일에 가치 부여하기

#### ▶ 형제·자매 관계 갈등 해결

##### 편견 없는 자세로 갈등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삼기

형제·자매간 싸움이 빚어지는 경우, 사소한 갈등 문제는 무시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적절한 때를 기다려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형제간의 대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장애의 유무를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동생이 아프니까 내가 이해해야지”라며 장애 형제의 취약점을 언급하거나, “내가 형이니까”라는 식으로 야단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과 소유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장기 형제·자매간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와 결부하여 나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점이 좋지 않은지 지적해 줍니다.

##### 예상되는 갈등 상황에 대해 미리 규칙을 정하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갈등 행동에 대해서는 미리 규칙을 정한 후, 종이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누군가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벌칙을 받도록 약속합니다. 형제 중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현관 신발 일주일 동안 정리하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 비장애 형제·자매의 감정을 공감해주기

비장애 아동이 스스로 가정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무관심으로 인한 질투심을 경험할수록 장애 형제·자매에게 더욱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야지.”라는 반응보다는 “OO이가 힘들고 속상한 걸 엄마가 충분히 이해해.”라며 비장애 형제·자매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년 6월 9일

인천서희학교장